

사회

자녀의 세뱃돈은 안녕한가요?

광주 충장로·금남로 일대 청소년 갈취 범죄 잇따라

졸업·방학 시내 몰려... 외출시 용돈관리 지도를

설날에 이어 졸업·신학기 시즌을 맞아 청소년 밀집 지역이나 학교 및 학원 주변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갈취가 빈발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청소년을 상당수가 세뱃돈으로 인해 수중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여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친인척들로부터 별도의 용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이 주머니가 두둑해진 청소년들이 액세서리 등을 취급하는 펜시용품점이나 의류점, PC방 등의 출입을 자주 하면서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

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왕래가 잦은 충장로·금남로 일대, 전남대 후문 인근의 골목길에서는 갈취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9일 길을 가던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빼앗은 유모(15·광주 모 중학교 3년)군 등 10대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 등은 지난 5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2가 모 의류매장 앞을 지나가는 이모(16)군 등 10대 2명을 근처 골목길로

끌고 가 현금 9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모(15·광주 모 중학교 3년)양 등 여중생 2명은 최근 동구 금남로 4가 의류매장 앞을 지나던 중 여고생 3명에게 인근 골목으로 끌려가 현금 3만원을 빼앗겼다. 김양은 피해 내용을 청소년들의 접속이 잦은 포털 게시판에 자세하게 올려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구 도심인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범죄가 잦은 이유는 빈 건물 이 많고 빌딩 뒷길이나 골목길 주변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CC-TV가 설치된 곳마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금품갈취는 물론 청소년들의 액세서리·의류 밀집 상가에서의 절도가 빈발하자 광주동부경찰은 충장로·황금동 변영회와 연계,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상호 연락망인 '청소년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동부경찰 관계자는 "최근 방학과 졸업에 맞ait한 청소년들이 시내로 많이 몰림에 따라 순찰을 대폭 강화했지만 모든 범죄를 예방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며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외출시 많은 현금을 지니지 않도록 지도해줄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PC방 사행성 게임물 점검
광주 북구청 영상음반팀 직원들이 9일 북구의 한 PC방에서 음란물과 사행성 게임을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학교 인근 PC방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은 오는 28일까지 실시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호텔 지하에 불법 게임장 15일간 6억채킨 3명 실형

광주지법 형사44단독 박 현 판사는 9일 호텔 지하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광주 G호텔 이사 황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4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게임장 운영에 참여한 이모(45)씨와 한모(45)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추징금 3900만원), 징역 6월(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 등이 범행을 치밀하게 모의하고, 15일간 6억57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은 지

금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불법 게임장 사건 중 가장 과감하고 규모가 크다"고 판시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9월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광주시 동구 G호텔 지하에 불법 게임장을 차려놓고 이른바 '어쭈구리' 게임을 통해 환전 매출만 6억5700만원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비경품 게임기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일부 변형해 불법 영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촌 창고에 불법 게임장 업자·주부 등 20명 입건

무전기·게임기 40대 압수

장성경찰은 9일 농촌의 빈 창고 건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종업원 임모(23)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달아난 업주 이모(45)씨를 수배했다.

또 불법 게임을 한 김모(50)씨 등 자영업자와 주부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사행성 게임기 40대 무전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8일 장성군 진원면 661㎡ 규모의 빈 창

고 안에 사행성 게임기인 '손오공 연대기 아케이드' 40여대를 설치해놓고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미리 확보한 고객들의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승합차를 이용해 고객들을 게임장까지 실어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업주 이씨를 추적하는 한편, 검거된 종업원과 손님들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구타·가혹행위자 51명 전남 611대대 해체검토

광주·전남 전의경 조사

광주·전남 등 전국의 전의경 360명이 후임 전의경들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청에 대한 25명이 후임들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전남경찰청 산하 611전경대에 대한 해체를 검토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의 신임 전의경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전의경 365명이 선임 대원 360명으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전임 6개월 이하의 전의경 7명이 선임 대원 6명으로부터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전의경 42명이 선임 대원 45명으로부터 가해 행위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전남경찰청 산하 611대대의 경우 전경 26명이 선임 전경 25명으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주 내로 611대대의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을 거쳐 가해 행위가 사실상 확인

되면 부대를 해체하는 한편, 가해 대원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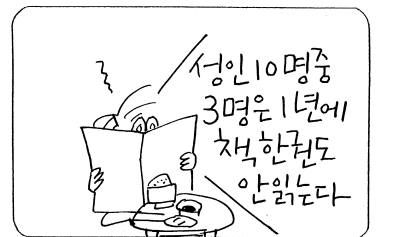
아울러 경찰청은 611대대를 비롯해 전국의 가해 전의경 중 현역 345명에 대해 징계나 형사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계획이다.

또 가해 전의경을 대상으로 10일부터 2주간 중앙경찰학교에서 인권전문가를 초빙해 인성·인권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서울경찰청에서 1주간 '신임 전의경 체험'과 심층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 기간 경찰관기동대 30명을 투입해 가해 대원들의 내부생활을 감독한다.

경찰청은 또 오는 15일 전의경 부모모임 회원 등 민간인이 포함된 '전의경 인권침해 처리심사위원회'를 열어 가해 행위의 정도에 따라 자체 징계 및 형사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중대장과 소대장 등 지휘요원의 관리 소홀도 구타·가혹행위의 원인이라고 보고 전국의 지휘요원 2835명을 3개 조로 나눠 11일부터 경찰교육원에서 인권교육을 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최영 강원랜드사장 사건영장

'함바 비리' 수뢰혐의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9일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함바 수수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함바를 둘러싼 각종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역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선 전 치안감의 사전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유씨에게서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했다.

폭발물 신고 상자 속에 현금 10억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있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자 안에서 주인과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0억원을 발견, 수사에 착수.

○9일 서울 영등포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께 서울 여의도백화점 10층 개인물류창고에 폭발물로 보이는 우체국 택배 상자 2개가 놓여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확인결과 각 상자에 1만원권 2억원, 5만원권으로 8억원이 채워져 있었다는 것.

○경찰은 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업체측이 "보관료를 받고 이 상자들을 맡아 왔다. 최근 사무실 이전 때문에 주인에 연락했으나 닿지 않은 데다 폭발물로 보여 신고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조성한 '검은 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출처를 밝힐 방침.

"친구들이 맘대로 훔쳐가라"

편의점 알바 고교생, 6명 몰려 물건 빼들러

'환불' 속여 한달만에 115만원 몰래 챙기기도

겨울방학을 맞아 자신의 집 인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먹은 고교 3년생 강모(18)군. 강군은 지난달 초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 신모(여·40)씨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다.

업주 신씨가 편의점 재고정리를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강군은 이 점을 노려 손님들이 물건을 사가면 곧장 환불을 해 간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기기로 시작했다.

한 두 차례 시험 삼아 몰래 돈을 가져가던 강군은 업주 신씨가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자 더욱 대담해졌다. 틈만 나면 '환불'을 일삼았다. 이렇게 강군이 1개월여

동안 빼들린 돈은 모두 115만원. 횡수는 30차례나 됐다. 하루 한 번 꼴로 돈을 훔친 것이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6명을 편의점으로 불러들여 진열된 상품을 마음껏 훔치도록 했다. 훔친 물건도 헤어 약스에서 라면, 김밥, 술과 담배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강군과 친구들이 빼들린 물건은 50만원 상당에 이르렀다.

그러나 강군의 범행은 수상한 감세를 느낀 업주 신씨의 신고로 달미가 잡히고 말았다. 광주서부경찰은 9일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강군 등 10대 7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호기자 kimho@

장성·곡성에서 교통사고

90대 노인·40대 부부 숨쳐

장성과 곡성에서 교통사고로 90대 할머니와 40대 부부가 숨졌다.

9일 오후 2시25분께 장성군 진원면의 한 마을 입구 앞길에서 이 마을에서 사는 이모(93) 할머니가 김모(47)씨의 1t 화물차에 치어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후진하던 중 쪼그려 앉아 있던 이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8시40분에는 곡성군 죽곡면의 한 교각에서 한모(44·순천시)씨가 돌던 산타페 승용차가 교각을 들이받은 뒤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한씨와 한씨의 아내(42)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한씨는 곡성 모 농협에서 일하는 아내를 출근시켜 주러 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김영편입학원

www.kimyong.com.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강원 일